

문화

행복한 책임기

까뜨리는 아를레이의 '지푸라기 여자' <동서문화사 펴>

욕망은 삶의 오아시스 같은 것... "사막을 걷는 나그네는 오아시스를 보고 지친 발걸음을 옮긴다."...

찌감치 평범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한다. 몇 년 동안 빼놓지 않고 들여다본 신문의 제6면 구혼광고...



지난 24일,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LOVE'였다.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아니스트였고...



1954년 미국 샐리번쇼 출연 모습



1960년대 이승만 대통령·프란체스카 여사와



1962년 백악관 공연 후 재클린 케네디와

연주할 때도 아내볼 때도 손자 앞에서도 'LOVE'

세계적 피아니스트 한동일·이혜련씨 50년 해외생활 마무리... 광주에 정착

광주에 정착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71)씨와 역시 피아니스트인 아내 이혜련(53)씨의 보금자리인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45평 아파트는 꼭 갤러리처럼 꾸며졌다.



광주에 정착한 피아니스트 한동일·이혜련 부부가 24일 아파트 연습실에서 슈베르트의 곡을 함께 연주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동에서 세계적 음악가까지... 3살 때부터 가르친 '아버지의 힘' 이야기도 나누고 연주도 하고 '피아노 토크'같은 작은 무대 꿈 11월 1일 두오콘서트 기부 '슈베르트 멋진 음악 들려드릴게요'

남이 있었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09년 세번째 만남을 갖게 된다. 순천에서 행사를 기획했던 그는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이씨에게 참여를 부탁했고, 2010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 우리 부부가 슈베르트의 너무 아름다운 음악과 사랑에 빠져 버렸어요. 함께 연주하면 우리의 소울이 합쳐지는 걸 느낍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게 한창 때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 도시 저 도시 떠돌며 공연하느라 여유가 하나도 없었죠."

광주피아노두오협회(회장 서영화) 초청으로 11월 1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한동일·이혜련 듀오 콘서트-슈베르트'에서는 '환상곡 F 단조 작품 103', '소나타 C 장조 작품 104' 등을 들려준다.

한 씨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한다. 광주에 동자를 틀 게 된 것도 26년 전 첫 만남을 가졌던 이들이 계기가 됐다. 그 때 연주회를 마치고 신양파크호텔에서 묵고 있던 그를 찾아온 사람이 정은순·김선자 전 전남대 교수였다.

탐욕의 매력은 크다 후회는 언제나 늦다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성경의 루가복음에서는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정작 칼 리치몬드를 죽인 안톤 콜프는 비정하다. 뒤늦게 후회하고 절망하는 히르데갈데 마에나에게 "왜 당신은 나를 믿지? 정확히 말해서 왜 처음부터 나를 믿었을까?"라며 "아무리 용기가 있더라도 쥐는 고양이로 이기지 못해, 내 손 안에서 당신은 단순한 밀집 인형일 뿐이야."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사람은 누구나 얼마간의 타산과 허영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언론 매체에서 말하는 한 기업가의 과장된 탐욕도 이런 발로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현욱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ewelry & Home Retailer) celebrating 30 years with a 30% OFF SAL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nd the website www.kjhr.com.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 Arirang House, highlighting 30 years of service and traditional Korean cuisine. Includes a list of menu items and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